

Abstract

(세션 2) 항만 혁신과 지속가능성

진 세로카, LA항만청 청장

혁신을 위한 환경 조성

LA항은 그간 오염 저감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난 20여 년간 추진해온 다양한 환경 이니셔티브를 통해 모든 형태의 배출가스를 대폭 감축했으며 특히 2005년 대비 디젤 미세먼지는 91%, 황산화물은 98% 감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같은 기간 물동량은 15% 증가했다. 최근 발간된 LA항 대기배출 보고서는 현재 LA항의 오염물질 배출이 최근 20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밝히며 경제 성장과 환경적 책무 이행을 함께 달성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성과는 샌페드로만 항만단지 전체와 공급망 파트너들이 함께 이룬 공동의 성취이다. 오염물질 배출 없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도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길이다. 지주항의 성격을 가진 LA항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장비를 직접 보유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선사, 터미널 운영사, 트럭 운송업체, 철도 운영사가 최첨단 친환경 장비를 도입·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LA항은 무배출 목표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추진 중이다. 터미널 전력 수용능력을 강화해 무배출 하역 장비 도입을 촉진하고 배터리 전기 트럭 구매와 충전소 설치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항만 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무배출 장비의 운용·유지보수를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해운물류 교육 캠퍼스를 건립하고 전 세계 항만들과 녹색 해운 회랑을 구축하여 해운산업의 선박 부문 탈탄소화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혁신, 파트너십, 창의적 해법을 통해 LA항은 전 세계 항만들과 함께 화석연료에서 탈피해 지속가능한 전환을 이끌어갈 것이다.